

과학로켓, 다목적 실용위성, 무궁화호 통신위성, 군사용 미사일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활용할 수 있음.

이를 고려치 않고 가입했을 경우, 상기 추진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될 소지가 있음.

한국내 미사일 관련 기반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및 장기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21세기를 지향한  
항공기산업 발전방향  
KIET연구 보고서 접수**

우리협회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 의뢰한 21세기를 향한 항공기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어 접수 되었다. 지난 4월 26일의 제2차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접수된 동 보고서는 신국판 219면의 짜임새 있는 보고서로 李景台선임연구원을 책임자로 수송기계산업 연구실의 朴重球 실장을 비롯한 金弘錫, 安永守등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동보고서 요약 49면 부터 게재>

**직원체육대회개최**

우리협회 임직원 일동은 지난 4월 23일 교외 관악산을 등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업무에 시달리는 심신을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시장 美·歐대결**

**보잉 777 개발로 과열  
에어버스사 긴장**

미국의 보잉사가 B777 기종을 선보여 세계 중·대형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게 되자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작년 11월에 내어 놓은 A340이 바짝 긴장하는등 세계의 중형 여객기 시장에 맞붙이 붙어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이어 항공기 부문도 2천년대에는 연간 1조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 때문에 세계 항공기 제작업체는 전에 없이 신형 항공기 개발과 수주전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싸움이 바로 미국사인 보잉사와 MD사에 대항하는 유럽의 에어버스사의 3파전이다.

에어버스사가 A340 기종으로 3백석급의 중·장거리 기종을 먼저 내어 놓자 MD사는 MD-11로 이에 맞섰고 이어 보잉사의 B777이 나온 셈인데 B777은 아직 ETOPS(확장된 항속거리에서 쌍발엔진 운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있어 이 점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세계시장을 놓고 용호상박격이 될 이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들의 판촉전은 불만만 꺼러가 아닐 수 없다.

**NASA, 5개 부문 도전  
침체되고 활로 모색**

미국 우주항공국(NASA)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의 외신이 전하고 있다.

클린턴 집권이후 우주개발예산의 대폭삭감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우주정거장 「프리덤」 건설계획이 무산되고 화성탐사선 실종으로 크게 위축됐던 NASA는 러시아와의 우주공동개발 신형항공기 개발 등을 통해 우주의 신비에 새롭게 도전하는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미-러 협력**

우주개발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독자개발이 어려워지자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쟁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번째 시도는 95년 6월로 계획된 미 우주왕복선 아틀랜티스와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와의 도킹계획.

지난 75년 아폴로와 소유스의 도킹이래 20년만에 이뤄지는 이 계획에는 러시아의 우주비행사가 아틀랜티스에 탑승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NASA는 또 유럽 일본등 국가와도 우주개발 프로젝트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화성탐사**

92년 9월 발사된 화성탐사선 마스 업저버가 화성선회궤도진입 3일을 앞두고 93년 8월 실종됨으로써 크게 위신이 떨어진 NASA

는 96년 새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차세대 탐사선으로 화성에 착륙하는 메수르(MESUR) 계획도 포함돼 있다.

#### 항공기 개발

현재 취항하고 있는 초음속여객기 콩코드를 능가하는 마하 2.5속도의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실현을 위해 NASA는 이에 필요한 핵심 테크놀로지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과제에는 미국의 세계적 항공기제작회사인 보잉과 맥도넬 더글러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우주천문학

93년 12월 우주왕복선 엔데버에 탑승한 우주인들은 연속 5일간, 합계 35시간 28분동안 허블우주망원경 수리에 성공했다.

우주왕복선사상 전례가 없는 우주선박 활동의 성공은 NASA의 위신회복에도 큰 힘이 됐다.

허블망원경은 우주의 시작, 은하의 구조, 행성계의 탄생등에 관한 흥미있는 관측결과를 보였다.

대기의 방해가 없는 우주공간에서 관측하는 허블망원경의 기능은 21세기의 천문학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지구관측

NASA는 지구 환경관측에도 적극 참여, 랜드셋등 각종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을 하고 있다.

또 자체개발한 TOMS 장치를 러시아 인공위성 메테오3에 장착, 남극의 오존홀도 관측하고 있다.

### 不況 탈출 몸부림 보잉사, 생산시간 단축

「비행기 한대당 생산시간을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하라. 그리고 생산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여라」.

세계 항공기업계의巨人 보잉사가 극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짜낸 경영혁신 전략이다.

보잉사는 최근 첨단 중형항공기 777기를 선보이면서 대대적인 홍보공세를 펴고 있지만 최근 2~3년간 계속되고 있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잉사의 불황은 전세계적인 주문감소추세때문. 보잉사는 세계 항공기 생산의 60%를 차지, 유럽 에어버스코스시업의 30%와 맥도넬더글러스의 10%를 압도하고 있으나 이 점유율도 점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잉사 항공기의 주문이 지난 92년에는 4백41대였으나 올해는 2백60대에 그칠 전망이다. 각종 항공기의 연간 생산량도 지난 90년 1천8백34대에서 지난해에는 1천1백54대로 줄었다.

이에따라 보잉사는 지난해 무려 1만7천명의 종업원을 해고했으며 올해도 7천명이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극심한 감량으로 지난해 약 10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줄이는데는 이골이 난 보잉사가 이번에는 생산주기를 줄이자고 나섰다. 보잉사의 론 우드워드 사장

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년내에 생산사이클을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평균 12개월인 생산주기를 오는 96년까지 737과 757기는 6개월로, 767과 747기는 8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목표다.

보잉사는 이러한 생산주기 단축이 조립시간을 줄이고 재고를 최소화해 오는 98년까지 25%의 비용감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이지 않는 폭격기 생산 재개에 관심집중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리는 최첨단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가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을까.

결프전때 바그다드 상공까지 무사히 날아가 전략요충지를 폭격했던 F117 스텔스의 개량형 B2 스텔스의 생산재개를 놓고 미국의 노드롭사가 최근 對의회 로비전을 치열하게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노드롭사는 F14 톱캣 전투기 생산업체 그루만사를 최근 인수한 미국의 대형군수업체.

노드롭사는 지난 92년 미국방부가 20대를 구매할 이후 생산중단된 이 폭격기의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하원에 1천5백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 노드롭사는 이같은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비싼 돈을 들여 마련해 놓은 생산시설의 해체는 물론 부품공급 및 기술인

력의 상실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드롭사는 또 생산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대당 5억8천5백만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2~3대씩 모두 20대의 B2 폭격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구매된 B2 폭격기가 대당 2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

B2 스텔스기 생산 반대론자들은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에 대항할 적이 없어진 마당에 이같은 냉전의 유물에 가뜰이나 부족한 국방예산을 쓰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 첨단수송기로 익일배달 TNT 익스프레스 새서비스

지난 4월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내는 국제서류와 화물에 대해서도 익일배달이 가능해졌다.

호주의 세계적 복합운송업체인 TNT 익스프레스는 4월11일부터 최첨단 화물전용기인 BAe 146 기종을 한국에 투입, AAE II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TNT 익스프레스의 AAE II 서비스 실시로 국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도시에 보내는 배달을 익일전달체제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아시아네트워크를 구축했던 TNT 익스프레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추가로 연결해 아시아 전지역의 익일배달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TNT 익스프레스는 현재 2만5천여대의 운송차량과 68척의 대형 선박, 첨단전용화물기 BAe 146 QT 70여대를 포함, 3백여대의 자체항공기로 전세계 2백10여개국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日 항공3사 참여 보잉 777 개량형 개발에

일본 3개 항공기제작사가 美 보잉항공사의 보잉777 신형여객기 개량형 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관계자가 지난 4월20일 밝혔다.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보잉777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富士)중공업·카와자키(川崎)중공업사 등 이라며 이들 기업은 보잉777 기본형 개발에도 전체 비용의 20%인 49억달러를 투자해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또 세회사는 이같은 개발 협력 계획에 따라 약 40명의 기술진을 보잉사에 파견할 예정이며 개량형 보잉777은 96년 여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禁煙 노선 확대운항 싱가포르항공, 3개 노선에

싱가포르항공은 금연 항공편수를 확대 실시 운항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3월 27일 이후 싱가포르항공의 금연 항공편은 싱가포르~중국, 싱가포르~뉴질랜드, 싱가포르~타이베이~서울(주5편) 노선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88년 싱가포르~팔라렘푸르간 항공편에 처음으로 적용한 이래 모두 75%의 항공편이 금연편으로 된다.

이에 따라 단거리 항공로는 참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 타이페이 경 우 서울노선등 장시간 비행 노선에서는 애연가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반면 비흡연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 정기 노선개설 타진 日, 후쿠시마 당국자 訪韓

개항 1주년을 맞이한 일본 후쿠시마현 공항관계자들이 지난 4월5일 서울~후쿠시마간 정기항공노선 개설을 위해 방한했다.

사토 후쿠시마 지사를 비롯해 시장, 상공회의소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한단은 교통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관광공사 등을 차례로 방문, 서울~후쿠시마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돌아갔다.

현재 일본 東北지방에는 센다이(仙台)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데 후쿠시마는 센다이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다.